



광주 외곽의 인근 밭에서 비둘기 수십여 마리가 날아오르고 있다. 최근 전국에서 조류인플루엔자(AI)가 기승을 부리자 시민들은 닭·오리 뿐 아닌 비둘기 등 야생 조류나 애완 조류도 위험하지 않을까 노심초사하고 있다. (광주일보 자료사진)

애완용 새들도 흑시? ... AI 불안감 확산

사랑받던 광주 도심 비둘기떼·집안 앵무새 천덕꾸러기로 시민들 인체 감염 우려 ... 전문가들 "감염 사례 없다" 밝혀

최근 광주 도심지역에 비둘기, 철새 등 사라져 가던 조류 동물이 자주 출몰하면서 조류인플루엔자(AI) 감염을 걱정하는 시민들이 늘고 있다. 야생 조류 뿐 아니라 집안에서 기르는 애완용 조류도 애환단지 취급을 받고 있다. 예전 같으면 시민들의 사랑을 받았을 애완용 또는 야생조류들이 천덕꾸러기로 전락하고 있는 것이다.

최근 광주시 동구 충장로, 금남로 등 도심지역에서도 시민들의 머리 위로 날아드는 비둘기 떼 수십여 마리를 쉽게 볼 수 있다. 이 비둘기들은 가까이 근접해도 도망가지 않고 오히려 머리 위를 스치듯 지나가는 등 사람들을 두려워하지 않고 있어 도심 환경에 적응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광주 우치동물원 등에 따르면 이 비둘기는 남구 사동 사자공원과 광주공원에서 지냈던 것으로 보금자리와 먹이 등을 제공받았지만 최근엔 모이를 주는 시민들이 줄어들어 시내로 모여 들고 있다. 비둘기들은 먹이를 찾아 쓰레기통을

뒤지거나 사람들의 배설물 등을 먹으며 연명하고 있다. 또 기온도 따뜻하다 보니 1년에 2~3차례였던 비둘기 산란주기가 6~7차례로 늘면서 숫자 자체도 엄청나게 늘었다.

뿐만 아니라 광주시가 광주전 정화사업을 수년간 진행하면서 수질이 점차 좋아지자 물고기가 늘면서 이를 먹이로 삼고 있는 왜가리, 해오라기 등 철새들도 모여들고 있다. 도심환경이 바뀌자 이에 맞게 생태계도 변하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최근 AI 파동으로 닭·오리 등 조류 동물에 민감한 시민들은 감염되지 않을까 노심초사하고 있다.

김혜숙(여·37·광주시 남구 사동)씨는 "시내를 걸어갈 때 옆으로 스쳐 지나가는 비둘기가 AI에 감염돼 있으면 전염되지 않을까 걱정되는 게 사실"이라며 "아이들에게도 비둘기 근처에 가까이 가거나 만지지 말라고 신신당부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집에서 기르는 앵무새 등 애완 조류

도 시민들에게는 걱정의 대상으로 바뀌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AI에 감염된 조류 근처를 지나가는 정도로 사람이 AI에 감염되지는 않는다고 조언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 AI에 걸린 비둘기가 한 번도 발견되지 않았을 뿐더러 비둘기를 통한 AI 인체 감염도 현재까지 세계에서 보고된 사례가 없다는 것이다.

전남대학교 수의학과 조경호 교수는 "고병원성 AI에 감염되면 다수 AI 바이러스가 노출된 곳에서 지내거나 닭·오리 등과 같이 지내며 위생이 매우 불결한 곳에서 걸리게 마련인데 국내에서 아직까지 인간 감염사례는 보고된 바 없다"며 "또 사람들이 고병원성 AI에 감염되지 않은 이상 집에서 기르는 조류에게도 전염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국립수의과학검역원 관계자는 "지난 2006년 등 비둘기 AI 신고가 들어와 검사해 본적이 있었는데 모두 음성으로 나왔었다"며 "비둘기의 배설물이 오래돼 곰팡이가 발생하고, 그 곰팡이 때문에 사람이 오염성 폐렴에 걸릴 가능성은 있지만 현재까지 사람이 감염된 사례는 없다"고 전했다. /강필성기자 kps@kwangju.co.kr

말라가는 호수... 국토 50% 사막화

황사 발원지 몽골 비양노르

지구 온난화와 건조한 날씨 등으로 전 국토의 50% 가량이 사막화한 몽골 정부는 상황의 심각성을 인식, 대규모 나무심기 사업에 본격적으로 나서고 있다. 빠르게 진행되는 몽골의 사막화는 국내의 황사 피해로 고스란히 이어지고 있다. 황사의 발원지인 몽골 사막화 현장을 둘러봤다.

한국정부·시민단체 나무심기 한창

몽골의 수도 울란바토르에서 서쪽으로 180km 떨어진 비양노르로 가는 초원길. 비양노르에 가까워지면서 초원에 둘러붙은 하얀 염분과 작은 물 웅덩이가 눈에 띄기 시작했다. 영크태왕 비양노르습장은 "비양노르에는 5개의 호수가 있었는데 그 중 3개가 말라갔고 현재 1개의 호수도 말라가고 있다"며 "최근 들어 강수량이 줄어드는 등 가뭄이 심해져 말라가는 정도가 가속화되고 있다"고 말했다.

건조한 날씨와 지구 온난화로 인한 사막화는 비단 황사발원지인 비양노르만의 문제가 아니라 몽골 전지역에 걸친 공통된 현상이라는 점에서 문제의 심각성을 더하고 있다.

또 이같은 몽골의 변화가 국경을

넘어 황사의 증가로 직접 연결된다. 비포장도로를 6시간을 달리는 내내 차창 밖으로 보이는 5월의 초원은 푸른 빛을 잃어 곳곳에 누런 모래 속살을 드러내고 있었고 초원 위로 끝없이 이어진 야트막한 산들은 나무 한 그루 폼지 못한 민

는 점에서 한국이 강 건너 불 경계 하듯 넘겨서는 안 될 문제이다.

몽골에서 나무심기 사업을 하고 있는 시민정보미디어센터의 오기출 사무총장은 "2003년 조사 결과, 몽골에서는 683개의 강, 760개의 호수 그리고 1천484개의 개울이 고갈됐다"며 "현재 몽골 국토의 50% 가량이 사막화가 진행됐고 90%가 사막화의 위기에 직면해 있다"면서 상황의 심각성에 대해 말했다.

비포장도로를 6시간을 달리는 내내 차창 밖으로 보이는 5월의 초원은 푸른 빛을 잃어 곳곳에 누런 모래 속살을 드러내고 있었고 초원 위로 끝없이 이어진 야트막한 산들은 나무 한 그루 폼지 못한 민

동산 그 자체였다.

시민정보미디어센터의 운영효 몽골지부 사무국장은 "비양노르 몽골어로 '부자'라는 뜻은, '노르'는 '호수'라는 뜻을 지니고 있지만 현재 비양노르는 호수가 말라버려 그 이름이 무색하게 됐다"고 전했다.

호수가 사라지는 현상은 물 부족 문제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호수 밑바닥이 지면에 노출되면서 진흙과 모래들이 고스란히 바람에 노출돼 황사의 피해로 고스란히 이어진다는 문제도 있다.

몽골 정부는 상황의 심각성을 깨닫고 대규모 나무심기 사업에 본격적으로 나서고 있다. 한국 산림청은 몽골에서 빠르게 진행되는 사막화의 심각성을 깨닫고 지난해부터 10년간 95억원을 들여 몽골 땅 3천ha에 나무를 심는 '그린벨트 조립 사업'을 시작했으며 시민단체들의 지원도 이어지고 있다. /연합뉴스

▶ 대한항공 신입직원과 대학생 70명이 지난 15일 몽골 울란바토르 인근 비양노르에서 현지인들과 함께 사막화 방지를 위해 나무를 심고 있다. 한진그림의 몽골 대한항공 숲 조성 사업은 올해로 5년째를 맞고 있다. /연합뉴스



대한항공 신입직원과 대학생 70명이 지난 15일 몽골 울란바토르 인근 비양노르에서 현지인들과 함께 사막화 방지를 위해 나무를 심고 있다. 한진그림의 몽골 대한항공 숲 조성 사업은 올해로 5년째를 맞고 있다. /연합뉴스

광주지역 대학 에너지 절약 '낙제점' 출근차량 10대중 7대 '나홀로 운행'

국제유가가 배럴당 130달러에 이르는 등 고유가 시대로 접어들고 있지만 광주지역 대학들은 에너지 절약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광주환경운동연합과 에너지관리공단 광주·전남지사가 지난 19일 오전 광주지역 5개 대학의 운전자 1인만 승차한 '나홀로 출근 차량' 및 승용차 5부제 이행 여부를 조사한 결과 '나홀로 차량'이 70% 이상으로 나타나는 등 에너지 절약에 대한 인식이 매우 부족한 것으로 조사됐다.

광주환경운동연합 등이 지난 19일 오전 7시30분부터 3시간 동안 에너지사용실태를 조사한 결과 호남대 '나홀로 차량'의 경우 전체 101대 중 83대(82.2%)에 이르렀고, 광주대 145중 116대(80%), 광주교대 83중 65대(78.3%), 조선대 866대 중 596대(68.8%), 전남대

280대 중 179대(63.9%) 순이었다. 전체 1천475대의 승용차 중에서 1천39대의 차량이 운전자 1인만 승차한 '나홀로 차량(70.4%)'인 것이다.

또 이날 오전 9시부터 1시간30분 동안 각 대학 내에 주차된 차량 중 '차량5부제'에 해당하는 차량을 조사한 결과 위반 차량은 조선대 300대 중 79대(26.3%), 호남대 313대 중 55대(17.5%), 광주대 352대 중 59대(16.8%), 광주교대 300대 중 25대(8.3%), 전남대 313대 중 24대(7.6%)로 나타났다.

광주환경운동연합 관계자는 "초고유가 시대를 맞이하고 있지만 광주지역 주요 5개 대학의 차량 사용 실태는 낙제점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다"며 "학교차원에서도 출근수법을 보여 주는 등 에너지 절약 홍보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밝혔다. /강필성기자 kps@kwangju.co.kr

35년새 지구생물 30% 사라졌다

서식지 파괴·온난화 여파 지구의 6번째 대멸종 시작

지구의 건강 척도인 생물다양성이 지난 35년 동안 3분의 1 가까이 줄어들었다고 세계자연보호기금(WWF)이 15일 발표했다.

WWF는 내주 독일 본에서 열리는 유엔 생물다양성회의를 앞두고 공개한 보고서에서 서식지 파괴와 야생생물 거래 등으로 인해 생물다양성이 이처럼 줄어들었으며 기후 변화로 인해 앞으로 30년간 야생생물은 점점 살아가기 힘들어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WWF는 '살아있는 지구 지수'(LPI) 캠페인을 통해 전세계의 조류와 물고기, 포유류, 파충류, 양서류 등 4천종의 생물을 추적하고 있는데 지난 1970년부터 2007년 사이에 육상 생물은 25%, 해양 생물은 28%, 담수 생물은 29%가 줄었다고 밝혔다.

바닷새 종류는 지난 1990년대 중반부터 지금까지 30%가 줄었다. 팔린 버트필드 LPI 캠페인 대표는

"생물다양성은 지구 건강의 토대이며 우리 모두의 생명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만큼 환경에 대한 인식이 높아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처럼 생물다양성이 감소 추세를 보이는 것은 심상치 않은 일"이라고 지적했다.

일부 과학자들은 이처럼 광범위한 동식물 및 곤충이 사라지고 있는 것을 1억3천만년 전 대멸종에 이은 지구의 6번째 대멸종의 시작으로 보기도 한다. /연합뉴스

HYUNJIN 투자의 빛이 되겠습니다!
수완 신도시 현진에버빌
단지내 상가 특별 분양!

1단지 672세대 2단지 509세대

현진에버빌의 품격과 미래가치 이제 단지내 상가로 이어집니다.

은행용저대출 회도 40% 지원!

역시! 단지내상가도 현진에버빌입니다!

- 100M 이내 초·중·고교 초근거리 인접
- 수완 신도시의 미래가치와 프리미엄
- 대단지 아파트 단지내 독점적 상권
- 풍부한 배후 대단위 주거단지 입지

분양문의 062) 361-8022
신세계백화점 건너편 현진에버빌 모빌하우스에서 직접 확인하세요!!
· 분양사: (주)지음지산업개발

地友 부동산컨설팅
봉선동 남구청앞 슬퍼터우 상가 ☎ 062) 655-0063 011-9609-9500

- ◆ 믿음, 신뢰, 고객을 최우선으로 하는 부동산
- ◆ 광주·전남 전지역 정확한 권리 분석
- ◆ 10년간 경·공매 실전경험으로 철저한 수익성분석
- ◆ 투자자의 마음으로 고객을 상담하겠습니다.

※부동산 제테크는 소액으로도 가능하고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또한, 그 방법과 과정은 그리 쉽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地友와 함께 직접 실무와 경험하는 자세가 제테크 전문가가 되는 지름길입니다.
※ 남녀직원모집

대표 임근철
·공인중개사
·부동산 경·공매 분석사
·부동산 권리 분석사
·부동산 분양 상담사
·초담대학교 부동산학과 겸임교수

대승공인중개사
☎ 062)954-7700, 010-9468-7959

수완 지구
아파트거대 전문부동산

토지매매

- ▶광주 서구 유촌동 생산녹지 4,000㎡ 30m 제회도로 90m형 평당 24만원
- ▶광주 서구 덕흥동 생산녹지 4,208㎡ 평당 22만원
- ▶광산구 수완동 35m 데크로면 자연녹지 1,782㎡ 4,231㎡ 평당 70㎡(분할) 1,628㎡ 3.3㎡ 평당 120만원
- ▶수완지구 아파트 뒷산지역 종로 입구 상업용지 500㎡ 평당 190만
- ▶수완지구 35m 데크로면 버스정류장 앞 상업용지 820㎡ 평당 300만
- ▶광산구 신촌동 광산간도로변 지하철도 앞 상업지역 대지 286㎡ 미가 2억 9,000만
- ▶광산구 유계동 24,300㎡ 평당 41,000원
- ▶장성군 진원면 화랑리 3,240㎡ 평당 42,000원

모텔부지 매매 (모텔 허가필)

- ▶전남 화순군 도곡면 천안리 1,628㎡ 3.3㎡ 평당 120만원

상가임대

- ▶북구 양산동 택지개발지구내 중심상권
- 상가 1층 124㎡ 보증금 5,000만 월 200만
- 2층 248㎡ 보증금 4천 월 170만
- 3층 248㎡ 보증금 4천 월 150만

노블메디컬센터 임대분양

▶수완지구 중심상권

- 지하 1층, 지상 8층 연면적 5,000㎡
- 1층: 약국, 전자점, 안경점, 부동산, 이대통신점
- 2~5층: 병의원내과, 소아과, 안과, 피부과(이대후과 등) 임대중점수 다양
- 원내 지하주차장 및 원외 주차장 설치로 주차공간 100% 확보

※1층 파파마켓 임점확정
2층 파파콘서트 피자 임점확정
6~8층: 치과병원(임플란트전문) 개인 확정

① 수완지구 용지매매 및 개발상담 ①
광주·전남지역 주유소·충전소 거대 전문

생계형, 용식, 호프, 꼬치구이 전문 컨설팅 한국부동산 공인중개사
☎ 062-374-2880 · 010-9115-4467

기획·매뉴개발·매각상담·경영진단·인테리어

- ▶사구 매월등 보증금 5천만원 월1백4십만
- ▶사구 화정등 보증금 1천2백만 월 5십만
- ▶사구 쌍촌동 보증금 2천만 월1백2십만
- ▶사구 풍암동 보증금 5천만 월7십만
- ▶사구 차평동 297㎡ 보증금 3천만 월3백4십만
- ▶사구 미륵동 주차장 990㎡ 보증금 3천만 월1백4십만
- ▶광산구 흑석동 주차장 990㎡ 보증금 2천만 월백5십만
- ▶사구 화정동 보증금 2천만원 월120만원
- ▶북구 양산동 보증금 1억 월600만원
- ▶사구 화정동 보증금 2천 월80만원
- ▶광산구 쌍암동 보증금 6천 월300만원
- ▶사구 금호동 보증금 1억 월300만원
- ▶사구 화정동 보증금 1,200 월60만원

※ 시설비 인테리어 비용 별도

영업이 부진하면 원인이 있습니다.
기획에서 매뉴개발 경영 노하우 전수!
식당 전문 컨설팅과 상담하십시오.

※생계형 신규창업 상담(창업비용 2천만원에서 10억까지 다양) 매개 임대수시 접수합니다.※